



24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와 KIA 경기. KIA 이재주가 7회말 무사에서 좌익선상을 흐르는 타구를 날린 후 간발의 차이로 2루에 세이프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배상문 '버디쇼'

보기 없이 8언더 선두

KPGA SK텔레콤 오픈 1R

지난해 1승(에머슨퍼시픽그룹 오픈)을 거둔 '장타자' 배상문(캡러웨이)이 한 국남자프로골프(KPGA) SK텔레콤오픈 첫날 무려 8개의 버디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배상문은 24일 경기도 이천의 비에이 비스타 골프장(파72·7147야드)에서 벌어진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단 하나의 보기 없는 깔끔한 플레이로 일찌감치 리더보드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2주연속 우승을 차지한 김경태(신한은행)와 지난주 김경태의 3연승을 저지하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홍순상(SK텔레콤)에게 팬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이를 비웃듯 컴퓨터같은 퍼팅을 앞세운 배상문의 기세는 대단했다. 1번홀(파4)에서 출발한 배상문은 세컨 샷을 홀컵 40cm에 붙여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나머지 8홀은 지루

한 파세이브를 계속했다. 그러나 배상문은 인코스에서 버디 쇼를 벌였다. 배상문은 10~12번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낸 뒤 14~16번홀에서 다시 3연속 버디를 만들어냈고,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성공시켜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8개의 버디가 모두 3m이내의 퍼팅이었을 만큼 이어진 샷이 완벽에 가까웠다. 전태현(캡러웨이)과 김형태(테일러메이드)가 배상문에 1타 뒤진 7언더파 65타로 공동 2위를 기록했으며 아마시절 김경태와 함께 프로선수들을 위협했던 강성훈(신한은행)이 6언더파 66타로 공동 4위에 오르는 선전을 했다. 백전노장 최상호(카스코)도 5언더파 67타로 공동 5위에 오르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홍순상은 버디 2개, 보기 5개로 3오버파 75타로 하위권으로 출발했고, PGA 2승을 거둔 초정선수 애런 배틀리는 1언더파에 그치며 중상위권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빨 빠진 호랑이 "울고 싶어라"

"최희섭 빠지니 긴장감 또 풀어지나?" '스나이퍼' 장성호는 지난 15일 현대전에서 만루홈런, 18일, 19일 두산전에서 솔로홈런을 터트렸고, '말똥' 이종범은 지난 17일 현대전에서 1년 여만에 홈런을 날렸다. 1할타율로 침묵하던 김종국(이상 KIA)도 19일 두산전에서 시즌 첫 홈런을 장식했다. 최희섭이 'KIA호'에 합류하면서 팀의 주축들이 약속이나 한 듯 번갈아가며 홈런포를 쏘아대고 있는 것. 시즌 초 최하위를 헤매던 KIA는 최희섭이 합류한 지난 12일 지긋지긋한 6연패의 사슬을 끊은 뒤 8경기에서 5승 3패의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특히 지난해 5승 13패로 절대열세를 보였던 현대에 2연승을 거뒀고, 지난 22일 롯데전에서 12회말까지 가는 연장 접전끝에 10-9로 재 역전승을 거두는 뒷심도 발휘했다. 서정환 KIA 감독은 "북망이(최희섭)가



KIA, 최희섭·장성호 결장 롯데에 5안타 빈공 2-5 패 '불운아' 윤석민 7패...최다패 불명예

풀려 들어왔다. 희섭이가 온 뒤 경기가 잘 풀린다"며 '최희섭 부재' 효과에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망이' 4번타자 최희섭이 옆구리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지난 23일(3-7패)과 24일 KIA는 롯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KIA는 24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특급 에이스' 윤석민을 마운드에 올리고도 롯데에 2-5로 패했다. 앞치대 달린 격으로 최절정의 타격감을 보이던 3번타자 장성호 마저 왼쪽 등 근육통으로 빠지면서

KIA 타선은 5안타로 침묵했다. KIA 선발 윤석민은 6이닝 10피안타 4자책점으로 시즌 7패(2승)째를 기록, 8개 구단 투수 중 최다패 1위에 오르는 불명예도 떠안았다. 2회에 1점을 내준 윤석민은 4회 2사 이후 연속 4안타를 얻어맞고 2실점하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윤석민은 이어진 5회에도 상대 용병 리오스에게 중월 125m짜리 대형 솔로 홈런을 내줬다. 7회에 바뀐 투수 차정민도 롯데 첫 타자 이대호에게 큼직한 좌

중월 장외 솔로포(비거리 130m)를 헌납했다. 3년 장성호와 4번 최희섭이 빠진 KIA 타선은 0-3으로 뒤진 4회 선두타자 김원섭의 중전안타와 이용규의 볼넷을 묶어 만든 무사 1,2루서 홍세완의 유격수앞 땅볼과 이재주의 3루수 앞 땅볼로 1점을 뽑아내는 데 그쳤다. 9회말에는 2사 1루서 김종국의 우중간을 가르는 적시타로 1점을 더 보탤 뻔했다. KIA는 이날 패배로 17승 23패, 7위에 머물렀다. KIA는 25일 인천 SK전 선발로 신인 양현종을 예고했다. 한편 최희섭의 결장이 예고된데다 비마저 오락가락한 이날 광주구장은 휴일 오후 2시 경기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평일 홈 평균 관중(3천505명)에도 못 미치는 2천933명이 입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승민 '한풀이'

세계탁구선수권 단식 10년만에 64강 넘어

유승민(25·삼성생명)이 2007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이 대회와 얽힌 지독한 불운을 털어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세계랭킹 9위인 유승민은 24일(한국시간) 오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남자 단식 2회전(64강)에서 러시아의 '북방' 페도르 쿠즈민을 4-2(11-9 14-16 9-11 12-10 12-10 11-6)로 꺾고 32강에 진출해 대표팀 후배 이정삼(상무)과 맞붙게 됐다. 유승민의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64강 통과는 1997년 맨체스터대회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내동중 3학년이던 맨체스터대회 때 1

회전(128강) 탈락에 이어 1999년 에인 트호벤, 2001년 오사카, 2003년 파리, 2005년 상하이 대회까지 4회 연속 64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1회전에서 체코의 자클 클레프릭을 4-1로 누르고 64강에 오른 유승민은 세계 59위 쿠즈민에게 2, 3세트를 내줘 세트스코어 1-2로 몰렸지만 강한 포어핸드 드라이브 위력이 살아나며 내리 세 세트를 때내 '64강 징크스'를 날려 버렸다. 유승민은 이정삼과 짝을 이룬 복식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우 송-파블로 타바치니크 조를 4-1로 따돌려 같은 한국의 오상은(KT&G)-이정우(농심삼다수) 조와 16강 대결을 벌인다.



"뛰고 싶은데..."

24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KIA 최희섭이 옆구리 통증으로 경기 나오지 못하고 벤치를 지키고 있다.

"아프지만 동료들 덕분에 힘나요." 10년만에 광주로 돌아온 최희섭(28·KIA)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피부에선 윤기가 흐른다. 팀 동료들 중에 고교·대학 동문만 16명이 있고, 모처럼 어머니 양명순씨가 끓여주는 맛있는 된장국을 먹고 출근한다. 그래서 마음이 무척 편하다고 한다. 최희섭은 한국 생활을 묻는 질문에 "우선 팀을 옮기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KIA는 내 집처럼 아늑하다"며 활짝 웃었다. 지난 주말 잠실 두산전에서 주루 도중 다친 왼쪽 옆구리가 결려 두 경기나 결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동장에만 나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동료들이 있어 힘이 난다고 한다. 최근 부진(14타수 2안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부상으로 몸이 안 좋아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최희섭은 "동료들과 함께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빅초이' 최희섭의 한국생활이 가족과 학

"KIA, 내 집처럼 아늑해요"

최희섭, 동료 덕에 국내 복귀 적응 이현곤 등 고교·대학 선후배 11명

교 동문 동료들 덕분에 매끄럽게 정착하고 있다. 99년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에 입단한 뒤로 9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전혀 '문화적인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 그 비결은 바로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지는 독특한 한국문화에 있다. 우선 최희섭은 고려대 재학 시절을 포함하면 광주 부모님 집에서 10년만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경기장을 오간다. 또 경기장에 나가면 온통 반가운 얼굴들 뿐이다.

승정동초교와 광주제일고 동기 동창인 이현곤은 평소엔 말수가 적지만, 최희섭만 보면 막혔던 말이 트인다. 지난 14일 수원 방문경기부터 이현곤은 최희섭과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됐다. 함께 방을 쓴 것은 광주제일고 이후 처음이지만, 가장 친하다는 고교 동문이라서 그런지 둘은 만나기만 하면 수다쟁이로 변신한다. 속소는 물론 경기장에서조차 최희섭과 이현곤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끈끈한 우정을 자랑한다. 이현곤은 최희섭에게 국

내 투수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모든 흐름을 알려주는 도우미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KIA 내엔 이현곤 뿐만 아니라 최희섭이 다닌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출신들이 수두룩하다. 고려대 출신으로는 김지훈 포수 코치와 심재학, 김종국, 김상훈, 조경환 등 7명이 있고, 광주제일고는 차영화 2군 감독을 비롯해 이종범 등 모두 11명이나 된다. 광주제일고-고려대 직계인 김종국과 김상훈을 빼도 모두 16명이 최희섭과 동문인 셈이다. 이들은 최희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한국무대 적응을 돕는 조력자들이다. KIA가 연장 12회말 10-9 짜릿한 재 역전승을 거둔 지난 22일 롯데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부진한 최희섭을 대신해 동문 대 선배인 김종국은 4타수 3안타(2볼넷), 3타점, 2득점의 불꽃타를 터트렸고, 이종범은 한국 프로야구 통산 13번째 끝내기 몸에 맞는 볼로 후배 '빅초이'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일 돌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플로리다 말린스의 미 프로야구 경기. 플로리다 말린스의 투수 김병현이 3회 타석에서 첫 스윙을 한 후 배트를 놓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현 잘 던졌는데...이적 후 2승 실패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이적 후 두번째로 선발등판해 잘 던졌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김병현은 24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돌핀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경기에 선발등판해 5% 이닝 동안 안타 5개와 볼넷 6개로 4실점했다. 시즌 3승째를 노리던 김병현은 3-3 동점이던 6회에 강관해 승리투수가 되는 데 실패했다. 투구수는 108개를 기록했고 삼진 4개를 잡았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7.15에서 7.02로 약간 떨어졌다. 김병현은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예리한 변화구와 묵직한 볼을 앞세워 호투했지만 고비를 넘지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은 1회 초 선두타자 마이클 본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세인 빅토리아노와 지미 롤린스를 연속 삼진으로 잡았지만 2사 3루에서 필라델피아 4번 타자 체이스 어블리에게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맞았다. 2회에는 안타와 볼넷을 내주면서 2사 2, 3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본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해 한숨을 돌렸다. 김병현은 6회 초 누네스에게 상대 선발 투수 프레디 가르시아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흔들렸고 1사 1, 2루에서 좌완투수 테일러 탱커슬리로 교체됐다. 탱커슬리는 연속으로 볼넷 2개를 밀어 내기 점수를 주면서 김병현의 자책점은 4점으로 높아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